

트럼프 마피아처벌법 적용 25일까지 법정출두

조지아주 검찰 '리코법' 폭넓게 적용...최고 20년형 가능 트럼프 "21일 반박보고서 발표"...4차례 기소 혐의 91개

4번째 형사 기소된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지아주 검찰이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해 주목된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리코법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리코법의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리코법은 조폭 및 조직 범죄 대응 문제가 화두가 됐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연방법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

능한 리코법을 1980년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리코법에 따라 여러 범죄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의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주 주립대 교수는 이 매체에 "이 범죄 집단의 목표는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의 또다른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개의 기소 중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

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선거 사기 모의·선거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등 2건은 연방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성관계 압박음 혐의의 경우 뉴욕 검찰이 기소했으나 혐의 면에서는 조지아주 사건보다 가볍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 전문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조지아주는 현직 주지사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몇 곳 안 되는 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

CNN에 따르면 4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1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기소를 '바이트 정부의 정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유세에서 "좀 이

상하기는 하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4번째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에 대한 대규모의 복잡하고 상세한, 반박 불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면서 "21일 뉴저지 베드민스터(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잇단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습이지만, 사법 대응에 따른 비용은 선거 캠페인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승리를 위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될 돈을 변호사 비용에 쓰고 있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월북 미병사 안전 귀환 초점” 美 국방부 “망명 의사 검증 불가”

미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 검증할 수 없다면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트래비스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소통선을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래비스 킹은 또한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국에서 폭행 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됐던 킹은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으로 월북했다.

미국은 이후 킹 이병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등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안위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의미 있는 소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브라질, 사실상 국가 전체 정전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 대혼란

브라질에서 15일 오전(현지시간) 출근시간대에 전체 26개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큰 소동을 빚었다.

국가 시스템 운영센터(ON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1분께 국가연동시스템(SIN)의 운영 네트워크에서 고장이 발생해 국가 전기 시스템이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를 잃었다.

국가 시스템 운영센터는 이로 인해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CNN 브라질, G1 등 현지 언론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보고 됐으며, 호라이마주(州)를 제외하고 사실상 브라질의 모든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기 공급 중단 사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알렌산드리 시우베이라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에너지 중단이 처음 보고된 순간 즉시 에너지 복구 작업을 위해 특별 상황실을 만들었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제 마랭구 국가재난모니터링 센터 코디네이터는 에너지 생산 및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뭄에 대한 경보가 없기 때문에 정전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전으로 상파울루, 벨로 오리존지, 사우바도르 등 대도시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출근 시간대에 큰 혼란을 빚었다.

사우바도르에서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걸어서 이동해야 했으며, 벨렝 주에서는 신호등 작동이 중단돼 도로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남부와 남동부 및 중서부의 전력은 복구됐으나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여전히 정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속한 에너지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라하이아에서 새까맣게 탄 자동차가 방치돼 있다. 지난 8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조시 그린 하와이주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10일에 걸쳐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와이 산불 사망자 101명...“열흘내 200명 육박할 수도”

이던 지난 1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이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개탄하며 “앞으로 10일에 걸쳐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연락두절자’가 확인된 사망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기준으로 산불은 서부 해안인 라하이아 지역에서 85%, 중부 내륙 업컨트리-클라 지역에서 65% 진압되는 등 최악의 시기는 넘긴 듯 하지만 실종자가 많고,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극소수에 그치면서 악몽은 끝나지 않은 형국이다. 하지만 사랑과 우정, 연민, 평화 등을 포괄하는

바이든 “이른 시일 하와이 방문”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발생 이후 일주일여 만에 사망자가 1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은 전화 작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서다.

CNN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주지사는 15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가 10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 주지사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90여 명

하와이의 인사말 ‘알로하(Aloha)’에서 유래한 이른바 ‘알로하 정신’이 이번 재난 속에선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NN은 15일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들, 상실감과 슬픔에 빠진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쟁기려는 부동산 투기업자 등의 이야기를 벌여지면서 알로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밀워키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이른 시점에 하와이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결별 보복’ 여친 음란물 유포 美남성 1조6천억원 배상판결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 후 보복성으로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보복하기 위해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소송은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인 잭슨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2021년 10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끝내면서 여성은 잭슨에게 과거에 공유했던 자신의 은밀하고 사적인 이미지 파일에 더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잭슨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 등에 여성의 사적인 이미지가 담긴 파일들을 올렸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집세와 기타 요금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여성의 은행 계좌를 도용했으며, 가상의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